

성공하는 반수

Intro

삼반수를 끝내고 나서 읽은 책이지만 나의 2013년이 너무도 많이 겹쳐지는 소설이 하나 있다. ‘스물아홉 생일, 일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소설이 그것이다. 주인공 야마리는 곧 서른을 앞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외모는 뚱뚱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친구는 떠나가고, 집안 사정 역시 여의치 않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29살 생일에 자살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왕 죽을 거, 1년 후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에서 가진 모든 돈을 걸고 제대로 한판 승부를 벌인 후 멋지게 죽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목표 하나로 1년을 죽기 살기로 살아낸다. 라스베이거스에 갈 돈과 카지노에 걸 돈을 벌기위해 밤낮으로 ‘미친듯이’ 일을 하고, 그날 입을 드레스를 위해 ‘미친듯이’ 다이어트를 하며 카지노 게임을 공부한다. 그리고 1년 후 기어이 그 화려한 목표를 달성해낸다. 물론 죽지는 않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후에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어쩜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물론 나는 그때 29살은 아니고 21살이었고, 뚱뚱하긴 커녕 재수를 끝냈었을 땐 물골이 말이 아니게 말랐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나에겐 살만 없는 게 아니고 정말이지 재수를 끝내고 내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21살치고는 또래보다 사연이 많은 나였다. 믿었던 마지막 하나까지 없어졌을 때, 나는 용기가 생겼다. 대학 레벨을 높이고 싶다는 거창한 목표나, 대단한 무언가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었다. 단지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는 용기였다. 말하자면 더 잃을게 없어보였다. 그래서 반수를 시작했고, 과정으로 말하자면 저 소설의 야마리만큼 ‘미친듯이’ 살았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도전을 통해 내 길을 찾았으며 교대 입시에 성공했다. 내가 수험생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반수 방법이 아니다. 그런 방법적인 것을 요약하자면 종이 서너장이면 충분하다. 내가 진짜로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일년 후 죽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 당장 하루하루가 소중한 그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불태웠던 그 과정들이다. 또 반수를 하기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했다는’ 나의 스토리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핵심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년 11월, 그리고 2013년의 시작

재수, 경북대 입학

19살 때 본 수능에서는 지방 수의대 예비 11번을 받고 끝냈고 재수까지 해야 했다. 재수는 좀 달랐다.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수능에 맞는 영어 공부법을 끈질기게 연구했고, 만년 3등급에서 여러 시험에서 1등급과 100점까지 받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불안했던 국어도 97점을 받았다. 과학탐구는 늘 성적이 좋았고 수능에서도 좋았다. 그런데 두 번 째 수능에서 나는 가장 이상한 성적을 받는다. 난데없이 수학 5등급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수학 때문에 수의대를 코앞에서 또 놓치게 되었다. 삼수? 더 이상 자신이 없었다. 나는 5라는 숫자를 보고 실없이 웃었다. 실감이 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했다. 나와 가장 친한 내 친구도 나에게 웃기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너가 5(다섯손가락을 펴보이며 묵음으로) 는 좀 아니잖아?ㅋㅋ”

이렇게 운에 맡기는 시험 따위에 또 다시 내 1년을 걸 자신이 없었다. “너는 괜히 자퇴까지 해서!!”라는 말이 나올까봐 부모님을 볼 면목도 없었다. 친구들? 재수까지 실패하고 나니 도무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던 내가 이렇게까지 실패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끝까지 날 믿어주시던 고1때 담임 선생님? 수의대에 수시를 지원할 때 추천서까지 써주셨지만 그저 나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도리고 뭐고 그냥 창피했다. 집안 사정으로 말하자면 집에 모아둔 돈을 커녕 엄마 혼자 작은 미용실 하나 운영해서 겨우겨우 딸 둘을 키워낸 형편이다. 내 실패를 냅 놓고 바라볼 수도 없고 가만히 쉬기에도 면목이 없었다. 나는 일단 그냥 돈을 벌러 나갔다. 주6일 매일 8시간씩, 하루 종일 서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는 중에 경북대 수의대 수시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경북대 자연대에 영혼 없이(?) 지원했다.

왜 서울에 살면서 굳이 연고도 없는 대구까지 가냐는 많은 물음에는 “이 과가 여기 밖에 없기도 하고 등록금도 싸구요.” 라고 답했지만 사실 그저 도피처를 찾았을 뿐이다. 한참 낮춰서 지원했기에 입학 장학금도 나왔다. 기숙사는 아무래도 싫어서 2달을

죽어라 일한 돈으로 대구에 작은 자취방을 마련했다. 그렇게 도피처로 입학한 학교이지만 처음엔 그곳을 졸업하고 그 전공을 살릴 생각이었다. 천문대기과학과. 희소성 있는 전공이라 기상청이나 연구직으로 진로를 찾기도 쉬울 것 같았고, 내가 지구과학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게 안 되면 2학년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Peet시험을 준비해서 약대로 편입할 생각이었다. 진지하게 여러 가능성에 대해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했다. 어찌되든 필요할 것 같아 토익 책도 사서 끄적거리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수능은 싫었다. 아니 그 무서운 걸 다시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하루 5시간씩 공부한 수학이 5라니.. 5라니!! 나랑은 정말 인연이 없는 것이 수능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수능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